

(인도자용)

돌판에 새긴 말씀 “십계명” 4

“배신에서 신의로”

“간음 하지 말라”



### 마음열기

#### “배신의 기술”

친구가 내 비밀을 세상에 공개했다.

“입이 가벼워서 미안해...” 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입, 전에 치킨 다섯 마리 먹고도 조용하더니

내 비밀 하나에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

그날 이후, 난 다짐했다.

비밀은 냉장고에 넣는다. 말 못 하게.

#### “우정은 무게를 재지 않는다. 대신 뒤통수를 친다.”

친구인 줄 알았다.

내가 힘들 땐 “괜찮아?” 하더니,

내가 잘 되니까 “쟤는 원래 운이 좋잖아” 하더라.

친구인 줄 알았다.

나한테만 말하는 비밀이라더니,

세상이 알고 있더라.

친구인 줄 알았다.

내가 사준 커피는 고맙단 말 한마디 없고,

지가 산 커피는 “인간관계란 이런 거지”라며 SNS에 올리더라.

그래서 깨달았다.

우정이란 말은,

의리와 거리 사이에 존재하는 환상일지도 모른다.

#### “우정 테스트: 치킨 한 마리”

치킨 시킬 때 ‘너 뭐 먹고 싶어?’ 해놓고

지가 좋아하는 걸 시키더라.  
그 순간 알았다.  
쟤는 날 위해 빠도 못 빌라줄 애구나...

- ▣ 위의 글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 있나요? 그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 이었나요?

##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마태복음 5:27-28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  
니라

- ▣ 십계명 중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27-28은 간  
음의 범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셨나요?
- ▣ 예수님은 왜 겉으로 드러난 ‘간음’뿐 아니라 ‘마음에 품은 음욕’까지 문제 삼으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관점 등)
- ▣ 우리 시대와 문화 속에서 음욕을 자극하는 환경이나 매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아래 글을 읽고 외도의 범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다음 질문들에 대  
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일이나 승진, 취미나 스포츠, 뭔가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외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  
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감정이나 에너지를 배우자외의 다른 대상에게 쏟아 붓느

라 옆에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면, 성적인 문제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잘못된게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요즘 내 감정이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쓸고 있는 것이 있다면?

▣ 배우자 혹은 가족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 느끼는가?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마음 깊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있다면?

▣ 우리가 서로에게 더 집중하고 연결되기 위해 지금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일까?( 예: 하루 10분 대화, 주 1회 데이트, 서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기 등)



### 적용과 결단

"저 @ @ @은 신부 # # #양을 아내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혜로운 남편으로, 가슴 따뜻한 친구로 변함없이 당신곁에 있을 것이며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저 # # #은 신랑 @ @ @군을 남편으로 맞아 비가오나 눈이오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 까지 항상 존중하고 사랑하며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이 맹세 기억나시나요?

울타리 너머의 풀이 더 푸른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뛰어넘는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사실 이 맹세를 지키기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결혼은 자기희생, 자기부인, 이타심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매일같이 전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와 정반대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쓰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이용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기만족을

위해 그들을 조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배우자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내 뜻만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솔직하십니까?



기도